

연중 제7주일

(가해) 02월

화답송 : 시편 103(102), 1-2. 3-4. 8과 10. 12-13(© 8ㄱ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 그 러 우 시네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 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이름 찬미하여 라
 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 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
 3.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 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 네
 4.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들의 허물을 멀리 치우시 네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 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마 라
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 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
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 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 네
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 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 네

D.C.